



한인매일

■ 전화 | 5526-2404 | 5526-5464 ■ CEL | 04455-3563-2158 ■ E-mail : sol6070@gmail.com
■ 은행계좌 ■ Santander | 65-50535887-2 ■ CLAVE | 014180655053588720 ■ HANIN DIARIO SA DE CV

한인매일 연속 보도 찌라시의 몰락 엘코레아노 파렴치의 몰락 이임걸 영사 탄원서

4화 그러나 찌라시는 침몰한다. (4)

"당사자(이임걸 경찰 영사)는 세상의 온갖 비난을 모조리 짊어져야 했다. 그가 공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국민의 수감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누리의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였는가?"(엘코레아노 2016. 12월 19일)

엘코레아노 발행인은 참람한 자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 이름까지도 욕되게 하는 자다.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어찌 사건의 실체에 눈 감고 진실 호도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가? 자국민의 수감을 막지 못한 경찰 영사의 책임을 엘코 발행인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말은 정확히 하자. 수감을 막

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 영사 때문에 자국민이 구속되어 옥살이 중인 것이다. 정작 경찰 영사 자신도 멕시코 법률에 대한 무지와 초동 대처 실패로 자국민이 구속되게 한 사실을 국감에서 자인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면 용서 되지만 그 반대면 당연히 지탄 받는다. 소위 공직자인 경찰 영사 이임걸은 무고의 자국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임을 은폐하고자 오히려 그 자국민이 "임금을 착취하고 인신매매를 한 중범"이라며 여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함해 왔다. 이 허위 사실 유포라는 범법 행위의 주체가 바로 공직자 경찰 영사라는 점에서 비난 받은 것이다. 단지 공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임걸이 비난 받았다는 엘코레아노 발행인의 발상은 참으로 저능하다. 공직 자체가 무슨 죄인가? 경찰 영사의 직무유기로 한 자국 여성이 벌써 1년 가까이 멕시코 교도소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의 인생이 어찌면 파멸될 수도 있는데, 자국민에게 이런 비극을 제공해 놓고도 그 책임마저 그 자국민에게 전가한 자가 그렇다면 칭찬을 받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야 온당한 처사라고 엘코레아노 발행인 인정된 것은 주장하는 것인가? 본인의 자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멕시코 Santa Marta 교도소에서 벼룩과 바퀴벌레와 동거하며 썩은 물로 세수

하면서 추위에 떠는 고통스런 수행 생활을 한다 해도 엘코레아노 발행인은 이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남의 일 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엘코레아노 발행인 같은 사이버 종교 교인이 득세하기에 세상엔 불법이 판치고 거짓이 진실이 되며 사명감 있는 관료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것이다. 문제와 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며 오히려 표창까지 받는 아수라의 세상이 되가는 것이다.

"당사자(대통령)는 세상의 온갖 비난을 모조리 짊어지고 있다. 그가 최고 권력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누리의 비난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

어떻게? 범법자 경찰 영사를 두둔하는 엘코레아노 기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논리가 아닌가? 엘코 발행인은 이러한 논조로 한번 한국 매체에 기고해 보라. 일베가 평생 사부로 모실 것이다. 성경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상대적 의미는 "악인은 입텠이가 미련하고 그의 혀바닥은 불의를 뱉어내며"라고 이해가 된다. 종교인 엘코레아노 발행인에게 해당하는 구절은 어느 것인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중 "증언부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는 구절은 바로 엘코레아노의 찌라시 탈피에 절대 필요

한 말씀이다. 엘코 발행인이 쓰는 글을 보라. 증언부인, 횡설수설, 중구난방, 오락가락등 모든 잡탕적 요소의 집합체다. 엘코레아노 주간지는 무료로 배포해도 독자들이 별로 읽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엘코레아노의 용도가 싸구려 물건이나 싸는 포장지로 전략해 있고 보면 몇 안 되는 광고주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가?

"(멕시코 검찰의) 항고 사유도가 관이다. 문서의 작성 시점과 그 문서가 기술하는 내용이 합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의 "영사 확인서"가 전부다. - 중략 - 영사와 함께 출두한 통역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을 차제 하고라도" (엘코레아노 2016. 12월 19일)

어지럽다. 멕시코 검찰을 비호하던 분의 변신이 놀랍다. 틀린 말은 아니나 역시 찌라시 답게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해 불가능하게 서술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경찰 영사 이임걸은, 멕시코 검찰이 작성한 "불합리한 내용의 영사 확인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명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국민 양모씨의 석방이 불발된 사실을 엘코는 왜 누락 시키는 것인가? 통역을 핑계 대는 것은 본인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2016년 공휴일 안내

- 1월 1일 [금] 신정 | Ano Nuevo
 - 2월 1일 [월] 제헌절 | Dia de la Constitucion
 - 3월 21일 [월]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 Natalicio de Benito Juarez
 - 3월 24-27일 [목-토] 세마나 산타 | Semana Santa
 - 5월 1일 [일] 노동절 | Dia del Trabajo
 - 9월 16일 [금] 독립 기념일 | Dia de la Independencia
 - 11월 21일 [월] 혁명 기념일 | Revolucion Mexicana
 - 12월 25일 [일] 크리스마스 | Dia de Navidad
- 제헌절과 베니토후아레스 탄생일, 혁명기념일은 본 공휴일을 그 주 월요일로 변경해 휴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만 요일에 상관 없이 해당 일에 쉽니다.

멕시코시티 기상 정보

오늘
내일

최고 : 23
최저 : 9

최고 : 23
최저 : 9



환율안내

오늘 오전 10시 기준

멕시코 페소 (Banamex)
Compra 20.25 Venta 21.00
원화 (외환은행)
사실때 1222 / 파실때 1180

긴급 전화

앰블런스 065
경찰서 066
소방서 068
전화번호 안내 040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안내

차량 번호판 끝자리 : 검사 기간

5번 / 6번 : 1월-2월, 7월-8월

7번 / 8번 : 2월-3월, 8월-9월

3번 / 4번 : 3월-4월, 9월-10월

1번 / 2번 : 4월-5월, 10월-11월

9번 / 0번 : 5월-6월, 11월-12월